

살아 있는 천년의 도시 경주 그리고 국립공원¹⁾

이 수 형²⁾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경주 생태계 그리고 국립공원

‘경주’하면 무엇보다도 기억 한 켠의 수학 여행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기억 가운데는 아마도 불국사와 석굴암이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유적들이 경주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그러한 유적들 사이로는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속적인 추가 지정을 통하여 현재는 8개 지구 136.550 km²에 이른다.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현재는 경주국립공원사무소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으로 국립공원의 질 향상,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안전사고와 각종 불법행위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초기에는 지자체의 소규모 인력이 관리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국립공원 관리직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8년 1월 경주사무소가 개소하였으며, 개소와 동시에 공원관리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지

금의 업그레이드 된 경주국립공원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경주국립공원은 역사문화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국보 12점, 보물 25점, 사적 9개소, 시도유형문화재 15점 등 총 73점의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타 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재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과히 월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주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자원 외에도 생물자원의 가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관리권이 관 이 전에는 자연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보전적 투자와 지원은 적었지만,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자연자원조사, 자원 모니터링, 특별보호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뿐만 아니라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실질적 관리가 시작된 이후 경주국립공원내 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자연자원조사 그리고 그와 연계된 조사·연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국립공원에는 식물 772종, 동물 1,402종, 거미 105종 등 총 2,629종의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경주국립공원에 있어 생물자원의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가치 또한 간

1)Gyeongju with a Thousand Years of History, and National Park

2)LEE, Soo-Hyoung, Gyeongju National Park Offic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E-mail: leecivil@knps.or.kr

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례로, 인근의 주왕산국립공원 2,597종, 가야산국립공원 2,151종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치이며, 경주와 같이 도심형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는 계룡산, 북한산, 무등산국립공원과 비교해도 조사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경주국립공원이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그간의 서식지 관리에 따른 생물자원의 안식처 역할과 이러한 각각의 국립공원 지구는 도심속 생태 보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경주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수달과 흰꼬리수리를 비롯하여 2급 담비, 삿, 올빼미, 구렁이, 새매, 애기송이풀 등 총 23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경주국립공원이 비록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로만 평가받고 있지만 생물자원의 서식지 보고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물자원 외에도 경주국립공원에는 다양하고 희소성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산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매년 특

별보호구를 추가 지정하여 적극적인 관리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그중 경주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보호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수달(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수달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과거 전국의 하천에서 흔하게 분포하였으나 수질 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경주국립공원에서는 2010년과 2011년 공원자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토함산지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흰꼬리수리(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우리나라의 겨울철새로 해안, 호수, 강 하구 등에서 관찰되며 조류, 어류, 양서류, 곤충 등을 먹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식지가 감소함에 따라 개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43-4호 및 국제적 관심대상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에서는 2010년과 2011년 공원자원모니터링을 통해 토함산지구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 경주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구분	국명	학명	구분	국명	학명
1급	수달	<i>Lutra lutra</i>	2급	까막딱따구리	<i>Dryocopus martius</i>
1급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2급	새매	<i>Accipiter nisus</i>
2급	삿	<i>Prionailurus bengalensis</i>	2급	참매	<i>Accipiter gentilis</i>
2급	담비	<i>Martes flavigula</i>	2급	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2급	하늘다람쥐	<i>Pteromys volansaluco</i>	2급	붉은점모시나비	<i>Parnassius bremeri</i>
2급	새호리기	<i>Falco subbuteo</i>	2급	애기송이풀	<i>Pedicularis ishidoyana</i>
2급	수리부엉이	<i>Bubo bubo</i>	2급	복주머니란	<i>Cypripedium macranthos</i>
2급	잣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i>	2급	자주땅귀개	<i>Utricularia yakusimensis</i>
2급	조롱이	<i>Accipiter gularis</i>	2급	노랑붓꽃	<i>Iris koreana</i>
2급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2급	산작약	<i>Paeonia obovata</i>
2급	큰말뚝가리	<i>Buteo hemilasius</i>	2급	올빼미	<i>Strix aluco</i>
2급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 담비(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과거 한반도 중동부 지역에서 흔히 관찰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산림파괴에 따른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및 분포지역이 감소하였다. 울창한 숲에서 무리지어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포유류, 조류, 과일 등을 먹는다. IUCN 관심대상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 자원모니터링과 2013년 특별보호구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주국립공원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국 산악지대의 자연림이나 인공 조림지에서도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산림벌채, 댐 건설, 서식지 환경 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에서는 토함산 습지특별보호구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태연구, 서식지 관리 등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삿(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정확한 개체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최근에는 서식지 파괴, 로드킬 등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중이다.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 남산지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함산 습지 보호지역(특별보호구)

2008년 경주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습지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하늘다람쥐, 삿, 담비를 포함하여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 등 다양한 포유동물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3,826 m²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불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산사태로 차단된 꼭저부가 습지로 천이된 산지습지로 학술적 가치가 높

□ 하늘다람쥐(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성숙한 활엽수림대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애기송이풀



담비



수달



하늘다람쥐



삿



복주머니란

그림 1. 경주국립공원의 주요 멸종위기야생생물



토함산 습지 보호지역



애기송이풀 보호지역

그림 2. 경주국립공원 야생생물 보호지역 (특별보호구)

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애기송이풀 보호지역(특별보호구)

애기송이풀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한국특산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종이다. 분포지는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과 강원도 횡성군 경상북도 영양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국립공원에서는 2011년 특정식물모니터링을 통하여 애기송이풀 서식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2013년부터 토함산 지구내 서식지 일원 5,605 m²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애기송이풀 서식지는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곳으로 국내 남방한계로 추정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태와 역사의 어울림, 고요한 천년의 도시 경주

경주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 목적이 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기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 별로 구분해 보면 국보 12점, 보물 25점, 사

적 9개소, 시도유형문화재 15점 등 총 73점의 역사·문화자원이 경주국립공원내 위치하고 있다.

비록 이처럼 풍부한 문화자원에 걸맞게 대부분의 탐방객은 경주 도심의 역사·문화 관광지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탐방객은 이러한 도심속에 수천종의 생물자원과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한다. 2008년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과 함께 실시된 자연자원조사 이전에도 경주국립공원의 생물상에 대한 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토함산, 남산이라는 대표적 지구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이라는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경주국립공원의 지정목적 자체가 자연경관의 수려함이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차원 보다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물의 보호차원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연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적었으며,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심속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간과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소중한 생물종들은 저마다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국립공원의 가치를

표 2. 경주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자원

구분	내용
국보(12)	불국사다보탑(20호), 불국사삼층석탑(21호), 석굴암석굴(24호) 등
보물(25)	무장사지삼층석탑(126호), 남산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199호), 석굴암삼층석탑(911호), 불국사사리탑(61호) 등
사적(9)	신라무열왕릉(20호), 김유신묘(21호), 감은사지(31호), 불국사(502호) 등
천연기념물(5)	매류(323호), 부영이류(324호), 원앙(327호)
시도유형문화재(15)	기림사삼층석탑(235호), 침식곡 석불좌상(112호) 등
시도기념물(1)	경주표암(54호)
문화재자료(6)	백률사대웅전(4호), 기림사진남루(251호) 등



감은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112호)



칠불암마애불상군
(국보 제312호)



석굴암 석굴
(국보 제24호)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36호)



무장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26호)



불국사 대웅전
(보물 제1744호)



김유신묘
(사적 제21호)



불국사
(사적 제502호)



열암곡석불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113호)

그림 3. 경주국립공원의 주요 역사·문화자원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경주국립공원 지정 반세기가 도래하는 지금, 이제는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도심속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은신처 그리고 생태 보고의 역할로써 경주국립공원의 가치가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경주국립공원사무소, 2010. 경주국립공원의 역

사문화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pp. 21-229.
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경주국립공원자연자원 조사 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pp. 171-191.
국립생물자원관, 2014.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환경부. pp. 42-59.
국립중앙과학관, 1997. 경주국립공원 생태계 연구.
박종균, 안승락, 2000. 경주국립공원내 개발지구 별 딱정벌레류의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동물학회지, 5: 133-137.